

급변하는 인구 대응 방안에 '고심'

군산시,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인구변화 예상... 선제적 대비 '최선'

군산시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중 합계계획 발표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급변이 예상되는 군산시 인구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군산시는 약 114조원의 대규모 한국판 뉴딜정책의 목표가 '지역균형발전'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군산시의 선제적 대응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했기 때문이다.

선제적 대응의 연장선상으로 군산시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의 대응에도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원격·재택근무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디지털 경제의 전환 가속화로 인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인구가 지역으로 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첫째아 출산 시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아 출산 시 정착금의 1/3을 탕감해주며, 셋째아 출산 시 정착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다.

현재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정치권에 건의, 추후 급변하는 인구이동에 대비하고자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수경제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개인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산형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위한 정책자문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지난날 23일 개최했다.

인구이동 패러다임은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목표와 부합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급변하는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 방안의 하나로 지난 3월에 개최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신혼부부 주택 정착금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신혼부부가 주택을 임대 및 매매할 경우 정착금

이어 군산형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서 군산시로 이전하는 시민에게 주요관광지, 맛집, 카페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군산시 알리기 사업'을 추진해 정감 있는 정착의 기회를 마련하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시민에게는 교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급변하는 인구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는 익산역과 동산동 유천생태습지 공원에 자연친화형 생태 그늘터널을 덩굴성 식물과 국화를 활용해 조성했다.

생태 그늘 터널에서 "추억 만들기"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에게 삶의 여유를 주는 공간 마련

익산시는 익산역과 동산동 유천생태습지 공원에 자연친화형 생태 그늘터널을 조성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된 생태터널은 여주, 마, 시계꽃, 백향과, 조롱박 등 덩굴성 식물과 국화를 활용해 조성했다.

생태터널은 폭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공간 주변에는 장소별 특색을 갖춘 포토존도 들어섰다.

익산역에는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

역 선정을 기원하는 유라시아 희망열차 포토존을, 유천생태습지공원에는 토끼어리 조형물과 식물을 이용한 포토존을 조성했다.

시는 이 공간을 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 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덩굴성 식물로 조성한 생태 그늘터널에서 더위도 식히고 가족,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도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403명 대학생에 단기 일자리 제공

익산시가 403명의 대학생에게 단기 일자리를 통해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익산시는 대학생의 행정체험 연수 등의 기회 제공을 위한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단기인턴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날 13일부터 6주간 진행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해 채용 인원과 기간을 확대했다.

대학생 일자리는 시청 소재 36개 부서에서 근무하며 행정체험을 연수하는 사업으로 총 1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은 시 소재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에 303명의 학생을 배치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해당 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조직적응력 강화 교육을 받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의료계 집단 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익산시는 의료계 2차 집단 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 휴진 종료 시까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야간 당직 근무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원광대병원과 익산병원 등 2곳의 응급 의료기관에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8곳(요양병원 9곳)에는 오후 8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의원급 의료기관 169곳 중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해 보건소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휴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SNS 등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휴진참여를 밝힌 의료기관이 지역 전체 의원 수의 30% 이상일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위해 '총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강화

군산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마스크 미착용자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장소는 수송동 롯데마트, 내운동 차병원 사거리, 영화동 등으로 실내(커피숍, 술집 등)와 실외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계도를 점검한다.

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읍면동에 캠페인을 추진하고 학원 방역수칙 준수 문자전송을 보낼 예정이다. 청소년복합문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중단, 평생학

습관 운영 프로그램 중지, 월명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중지, 동네문화카페, 행복학습센터 수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방문판매업 57개소 행정명령서를 전달했으며 제조업체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관리자 지정 및 사업장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코로나19 공공일자리 방역보조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강화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을 임시휴관하는 등 해제시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



단(권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군산시는 역학조사 지원단 근무 편성 지원하고 자가격리 이탈자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소방서, 태풍 '바비' 북상 대비태세 강화

익산소방서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대비해 긴급구조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익산소방서는 태풍 바비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비태세 강화에 돌입했다.

이번 태풍은 현재(24일 기준) 강도는 중심기압이 980hPa, 최대풍속이 시속

29%인 태풍으로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북상 중이다.

익산소방서는 침수·지반붕괴 우려 지역 예찰활동 강화, 소방력 재배치·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소방력 지원, 유관기관 재난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선다.

특히 기상특보 발표 시에는 태풍 종료시까지 관서장을 포함한 전직원 비상경계근무에 돌입, 신속한 복구 지원과 피해 수습 활동에 임한다.

또 구명환·구명조끼 등 수난구조장비와 이동식 동력소방펌프·수중펌프·대형양수기 등 수방장비 5종 등 장비들의 철저한 점검으로 유사시 100% 가동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가족2명 확진자 발생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지역감염 추가 발생으로 군산18번, 군산1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 경 군산18번, 군산1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모녀는 군산 17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진자 가족 간 접촉으로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18번 A(10대·여)양은 지난 22일 오후 발열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3일 오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후 이날 오후 8시 경 양성판정을 받았다.

군산19번 B(40대·여)씨는 군산17번의 배우자로 현재 인후통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군산14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9일 선별진료소에서 음성판

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B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경 증상을 발현했으며 23일 오전 8시경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다시 검사를 받은 후 이날 오후 8시 경 양성판정을 받았다.

군산시는 A양, B씨와 관련해 이동통신 등 CCTV를 확인하고 이동 동선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으며 접촉자들에게 대한 동선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조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지역에서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지역 전파가 가족 간 발생한 첫 번째 사례"라며 "지역전파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모임이나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